쪽방촌 노숙인 마음치유의 장 열다

자비나눔공덕회 1월 27일 쪽방촌 '마음충전소' 개소
고독사 천도재 · 떡국나눔도

노덕현 기자 noduc@hyunbul.com



마음충전소 개소와 함께 쪽방촌에서는 설명절을 앞두고 떡국과 과일 나눔도 진행됐다. 마가 스님이 쪽방촌 주민들에게 포장된 음식을 전달하며 안심법문을 하고 있다. 사진=박재완 기자

'헬조선' 이란 용어가 난무하던 2018년 1월 25일. 고시촌으로 유명한 노량진 한복판에는 청년들의 아픔을 어루만지는 '마음충전소' 가 개소했다. 심리적으로 불안한 청년들이 편하게 찾아 잠시 쉬었다 갈 수 있는 마음충전소는 '헬조선' 을 '힐조선' 으로 바꾸었다는 평가를 받았다.

4년이 지난 1월 27일. 겨울 한파를 이겨내기 위한 노숙인들의 보금자리, 다닥다닥 붙은 1평짜리들이라 해서 붙은 이름 쪽방촌에 이들의 자활을 돕기 위한 또 다른 '마음충전소' 가 문을 열었다. 2018년에 이어 '중생이 아프면 어디든 달려간다' 는 국민멘토 마가 스님의 의지다.

사단법인 자비명상 산하 자비나눔공덕회(회주 마가)는 1월 27일 영등포 쪽방촌에 '마음충전소' 를 개원했다.

그동안 불교계는 노숙인들이나 독거어르신 지원에서 물품 지원 중심으로 활동을 이어왔다. 마음충전소는 이러한 물적 지원에서 심적 지원까지 불교 복지활동이 확장됨을 상징한다.

그런 의미에 '마음충전소' 개소식에는 자비명상 대표이자 공덕회 회주 마가 스님과 자비명상 총동문회장 관우 스님 등 자비명상 지도자 스님들이 함께 했다.

명상을 통한 심성 개발과 자비심 발현으로 공동선을 실천하고자 하는 자비명상의 취지와 '마음충전소' 는 맞닿아 있다. 여기에 쪽방촌에서 노숙인들을 보살펴 온 정일화 쪽방촌도우미 대표, 김윤석 쪽방도우미봉사회장 등 봉사단과 장정화 대한불교청년회장, 조석주 한국대학생불교연합회장을 비롯한 불자들도 함께 했다.

스님들은 마음충전소 앞에 걸린 현판에 묶인 오색실을 풀며 사회 소외계층이 없이 평화가 깃들길 기원했다.

이 마음충전소에는 마가 스님을 비롯한 자비명상 지도자 스님들이 2인 1조로 돌아가며 365일 상담을 진행할 예정이다. 자비명상을 활용한 명상지도로 노숙인들이 마음챙김을 익혀 심리적 고통을 덜수 있도록 하는 것도 포함한다. 코로나19 상황을 감안해 대면상담 뿐만 아니라 전화상담도 진행된다.

이런 마음충전소가 문을 열게 된 것은 마가 스님의 생각이었다. 스님은 "쪽방촌을 처음 방문한 날 옆방에서 한 어르신이 돌아가신 지 일주일만에 발견됐다는 이야기를 들었다. 팥죽, 떡국나눔에 연탄나눔도 진행하고 했지만 이들에게 필요한 것이 이것만 일까란 의문이 들었다"고 회자했다.

이어 스님은 "우리의 고통은 심신 모두에서 찾아온다. 이들의 심적 아픔을 달래주기 위해서는 이들의 이야기를 들어주는 것이 중요하다고 생각했다"고 말했다. 스님은 직접 마음충전소에 거주하며 이들의 이야기를 들어줄 예정이다.

마가 스님을 비롯한 스님들의 자비실천행에 쪽방촌에서 활동하던 불자들도 박수를 보냈다.

김윤석 쪽방도우미봉사회장은 "쪽방촌 주변에선 많은 지원단체와 행사가 열린다. 하지만 이들의 사연을 듣고, 상담하고, 재활과정을 돕는 곳은 드물다. 불교계에서는 처음"이라고 기대를 표했다.

이날 마음충전소 개소식에 앞서서는 고독사한 노숙인들의 영령을 천도하는 천도재와 설 명절을 맞은 떡국 나눔도 진행됐다.

장정화 대한불교청년회 회장은 "마음충전소 운영은 청년불자들이 할수 있는 노력봉사를 통해 의미있는 변화를 이끌어 낼 수 있는 기회"라며 "마가 스님을 비롯한 자비명상 지도자 스님들의 모습에서 감동을 받았다. 자비나눔공덕회와 함께 더 많은 봉사와 나눔을 통해 불교 가르침을 실천하겠다"고 다짐했다.
(02)3666-0260



불교유튜브 '아이고절런' 5년 맞다

[인터뷰] 1세대 불교크리에이터 강산

2017년 2월, 페이스북에 게재된 한 청년의 사찰여행 영상은 교계에 색다른 감각을 선사했다. 드라마 도깨비 촬영지인 오대산 월정사 전나무숲길에서 드라마를 패러디한 이 영상에서는 템플스테이를 체험하기까지 한 젊은 청년의 모습이 유쾌하게 담겼다. 불교계 첫 유튜브 사찰탐방 프로젝트 '아이고절런(IGO절RUN)' 의 시작이다.

5년여 세월이 흘러 나투다픽처스 강산(34) 대표는 불교 유튜버 1세대로 활발한 활동을 펼치고 있다.

"사찰여행을 통해 불교를 만나는 과정이 재밌었습니다. 10년이라는 장황한 계획을 잡고 하루하루 즐기다 보니, 그 여정의 반절이 지나갔네요."

> "불교 세상에 알리는 힘찬 새해 만들어요"

강산 대표는 수많은 유튜브 영상 제작이 '불교' 에 대한 본인의 생각을 정립하는 기회가 됐다고 전했다.

"문득 생각해봤습니다. 불교는 나에게 어떤의미일까? '나를 더 나답게 하는 B' 라는 문장으로 정리가 됐습니다. 불교를 만나기 전에 나도, 지금의 나도 모두 나지만. 왠지 지금의 나가 더 나다운 나같다는 생각입니다."

5년간의 노력에도 아이고절런의 구독자 수는 4000여명. 적게는 수만에서 많게는 수백만명까지 독자들을 확보한 외부 유튜버들에 비하면 많은 편은 아니다. 자극적인 콘텐츠를 피해 불교를 새롭게 알리는데 집중했기 때문이다. 강산 대표는 불교가 지닌 한국전통과 문화유산, 다양한 재주를 지닌 스님들을 소개하는 등 한계를 넘기 위해 부단히 노력하고 있다. 이러한 노력 끝에 아이고절런에는 불교왕, 불로잡생 등 13개의 서로 다른 콘텐츠가 다채롭게 선보이고 있다.

새해 강산 대표는 청년들에게 보다 친숙하게 다가갈 수 있는 콘텐츠를 준비하고 있다. 어느덧 30대 중반을 향해가는 만큼 20대 젊은 크리에이터들과의 협업이 그것이다. 또 영상 뿐만 아니라 문화상품 등도 준비 중에 있다.

"지금까지 아이고절런을 통해 미디어 콘텐츠를 보여드렸다면 새로운 브랜드를 통해 불교 디자인 상품들도 보여드릴 예정입니다. 여러 작가님들과 협업을 통해 꽤 괜찮은 불교 디자인 상품도 만들어 보려고 합니다."

'재미' 하나로 빠져들어 청춘을 던진 불교크리에이터의 모습에서 새로운 힘이 느껴진다.

"현대불교신문의 구독자님들! 힘찬 새해되세요! 유튜브 아이고절런 구독!"

노덕현 기자

파사현정순례 1차 회향…"정법수호 영원히"

21일간 1000여명 동참, 망언 사과 등 이끌어내



동국대 팔정도 광장에서 진행된 순례회향에서 순례단이 정법수호를 결의하는 구호를 외치고 있다.

삼보사찰 천리순례의 걷기쇼 비하와 조계종 종정 예하 비방 발언에 대한 불자들의 준엄한 경책인 '파사현정' 걷기 순례가 1월 27일 제1차 순례를 회향했다. 1월 6일 입재 후 삼보순례 기간과 동일한 21일간 정진기간 1000여 불자들이 참여했고, 서울 조계사, 봉은사, 수국사, 백담사, 호압사, 아름다운동행, 동국대 법인사무처 등 50여 사찰과 단체들이 힘을 보탰다. 이를 통해 문제의 발언을 한 종무원과 해당언론의 사과 등을 이끌어냈다.

1차 회향식이 진행된 한국불교역사문화기념관에서는 수많은 불자들이 모여, 정법 수호를 새롭게 결의했다. 특히 회향식에는 교육원장 진우 스님, 포교원장 범해 스님, 소청심사위원장 동명 스님, 총무부장 삼혜 스님, 특보단장 혜일 스님, 호법부장 현민 스님, 만행결사 총도감 호산 스님 등 종단의 주요 스님들이 참석해 이들의 의기를 치하했다.

교육원장 진우 스님은 "파사현정 순례는 한국불교와 종단을 위한 소신있는 행동이었고, 호법신장들의 움직임이었다"며 "앞으로도 불법 수호 선봉장이 되어주실 것을 간절히 부탁드린다"고 말했다.

이날 순례단과 함께 포교원 부실장 및 종무원들과 동국대 까지 순례를 진행한 포교원장 범해 스님은 "삼보순례는 불교 포교를 위한 새로운 발걸음이었다. 그동안 묵빈대처만을 강조했던 불교가 이제는 정법을 펴는 열정을 보일 때다. 파사현정의 정신을 갖고 깨우침을 주는데 계속 나서자"고 당부했다.

조계종 총무부장 삼혜 스님은 총무원 집행부를 대표해 "순례단의 뜻을 왜곡하고 폄훼한 일부 종무원의 행동에 깊은 유감을 표명한다"며 "순례단의 신심과 수행이 폄하받는 일이 없도록 성찰하겠다"고 전했다.

총도감 호산 스님은 "순례대중의 숭고한 뜻이 훼손되는 것을 더는 좌시할 수 없다는 판단에서 정진을 하게 됐다. 비난한 이들을 헐뜯기 보다 걷기 수행으로 탁마해 선함을 드러내자는 의미였다"고 덧붙였다.

파사현정 순례에 나선 삼보순례단은 1차 회향을 시작으로 새로운 순례를 기획, 호법과 정법구현에 앞장설 것임을 전했다. 또 '순례 폄훼 및 해종행위 대책위' 를 구성, 대응에 나설 방침이다.

노덕현 기자

안심정사, 인재불사 박차

회주 법안 스님 원력에 '안심장학회' 설립 · 운영
2월 11일까지 1기 모집

기도와 나눔, 불교 외연 확장으로 포교의 새 장을 열고 있는 안심정사가 이번에는 불교인재 양성을 위한 장학금 지원에 나선다.

안심정사는 최근 '안심장학회' 를 설립하고 제1기 장학생 모집을 시작했다. 안심장학금은 회주 법안 스님의 원력으로 운영된다.

안심정사 상주대중 및 상좌 가족의 자녀, 안심정사 재수불공 동참신도의 자녀, 각 대학 법학전문대학원과 의학전문대학원 재학생과 각 대학원에서 불교학을 전공하는 학생, 행정고시 및 공인회계사반에서 수학 중인 학생을 대상으로 한다. 불교재단에서 운영 중인 고등학교의 경우 단체장학금 지원대상으로 포함된다.

장학금 신청은 2월 11일 오후 3시까지 가능하다. 지원자는 안심정사 홈페이지를 통해 장학금 신청서와 자기소개서, 교수추천서, 재학증명서, 성적증명서를 다운받아 작성한 후 제출하면 된다.

접수방법은 이메일 지원이며, 메일제목은 '안심장학회 장학금 신청/이름' 으로 기재하면 된다. 장학금 지원 대상자는 2월 21일 개별통보될 예정이다.
1670-4557

송지희 기자

www.boryeon.com
도량장엄 전문기업
보련기획
도량장엄등
부처님오신날 봉축기념탑
연등자동승강장치
원불전, 인등, 위패
각종 시설물 제작·시공
보련기획 BORYEON
010-5381-9355
031-526-2201
경기도 용인시 처인구 모현읍 문현로 189번길 27
도 량 장 엄 등

부처님오신날 봉축기념탑

연 등 자 동 승 강 장 치


원 불 전


인 등

위 패
